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6호 2002년 9월 1일 발행인 박태호

▶일본연구동향

일본의 中・近世移行期 연구의 경향

박수철(전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일본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사 연구 역시 커다란 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諸변화를 '버블' 경제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면, 역사학계의 경우, 마르크스주의사학의 퇴조와 사회사흐름의 대두로 대표할 수 있다.

戰國時代에서 織田信長(오다 노부나가),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 徳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중・근세이행기 연구 역시 전통적인 사회경제사 분야가 퇴조하고 새로운 경향성을 띤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연구흐름을 살펴보려 한다.

1. 단절과 연속

일본사에 있어 중세의 하한(바꾸어 말하면 근세 상한)을 어느 시점에 설정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室町・戰國시대까지를 중세로, 安土・桃山시대를 근세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며, 흔히

織田信長이 室町막부의 마지막 장군인 足利義昭(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축출한 天正 1(1573)년을 중요한 획기로 보고 있다.¹⁾ 이러한 통념에는 織田정권과 豊臣정권을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고 織豊정권(織田정권과 豊臣정권을 합쳐 부르는 용어)을 室町막부나 전국대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권력체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그러나 織豊정권을 과연 동일한 성격의 권력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전후 막연히 연속되는 성격으로 이해하여 온 織豊정권이 사실은 매우 다른 편성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1950년대 安良城盛昭에 의해 제기되었다.²⁾ 封建革命論으로 집약되는 安良城의 연구에 촉발되어 豊臣정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척되었다. 그 결과 兵農分離, 石高制, 鎖國이란 편성원리를 기반으로 한 근세 幕藩체제의 원형이 豊臣정권의諸정책에 있다는 점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해 온 織豊정권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성격의 권력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근세적인 豊臣정권과 달리, 織田정권은 중세 장원체제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한 중세적 권력이었다는 것이

1) 信長이 '上洛'을 달성한 永祿 11(1568)년, 織田정권이 京都지배를 사실상 확정된 天正 3年, 本願寺를 굴복시킨 天正 8년에 주목하기도 한다.

2) 安良城盛昭, 「太閤檢地の歴史的前提」 1・2, 『歴史學研究』 163・164, 1953. 同, 「太閤檢地の歴史的意義」, 『歴史學研究』 167, 1954.

다.³⁾

織田정권을 중세적 권력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⁴⁾ 양자간에 織田정권의 성격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권력론·국가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논쟁은 시기적으로 주로 1970년대에 집중되었고, 사회사가 유행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 이르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쟁도 종료되고 말았다.

그러나 織田정권의 정책과 豊臣정권이 시행한諸정책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확인되며, 그런 점에서 織田정권에 의해 뿌린 ‘씨’가 豊臣정권에 의해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이른바 ‘중세’적 요소가 織田정권내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織田정권에는 양측면(요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어느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가에 따라 중세권력(脇田修설)으로 근세권력(朝尾直弘설)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직전정권에 대해서는 양설이 크게 대립되고 있으나, 豊臣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세권력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양설 모두 이론이 없다. 중세사회와 확연히 구분되는 근세사회의 출현이라는 입장에 설 때 그것이 적어도 豊臣정권시기에는 확실히 달성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近年에 이르러 織豊정권을 분리시켜 파악하는 종래의 단절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中·近世移行期の 단절을 부정하고 이 시기의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속속 대두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일본 중세사연구자들은 자립적인 촌락이란 존재에 주목하였고, 촌락의 주체적 동향과

촌락간 분쟁 등을 통해 나타난 재지사회의 ‘自力救済’ 실태를 규명하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⁵⁾ 그 결과 太閤檢地와 兵農分離를 근거로 중·근세사회의 단절을 지적해 온 기존 연구가 당시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세 촌락의 諸질서, 권리, 제도 등이 기본적으로 근세초기까지 계승되고 있음이 드러났다.⁶⁾

종래 생산고로 파악해 온 근세의 石高가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年貢부과기준고였다고 하는 연구나,⁷⁾ 전국시대 일반적으로 사용된 咬보다 용량이 큰 것으로 이해해 온 京咬(쿄마스)이 사실은 용량적으로 전국시대의 咬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증하는 형태로 京咬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연구도⁸⁾ 중근세시기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입장에 서 있다. 결국 풍신정권을 근세권력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石高制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병농분리도 마찬가지이다. 刀狩令(도검몰수령)을 통해 관철시킨 것으로 말해지고 있는 병농분리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상을 반영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 병농분리를 가져온 가장 기본적인 백성에 대한 무장해제규정도 17세기 말까지는 백성·町人の 帶刀(刀·脇指)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한 흔적은 없고, 脇指의 소지휴대도 길이, 색깔 등 형상에 관한 표식규제이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⁹⁾ 이렇게 볼 때 豊臣정권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병농분리 또한 당시 실상과 다른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세 權門체제(武家·公家·寺社の 연합권력체)와 다른 편성원리를 지닌 근세 幕藩체제(武家 절대우위의 권력체)의 성립은 무가권력에 의한 公家·

3) 脇田修, 『近世封建制成立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77.

4) 今井林太郎, 「信長の出現と中世的權威の否定」, 岩波講座『日本歴史』近世 1, 1963. 朝尾直弘, 「將軍權力の創出」(1·2)(3)(4), 『歴史評論』241·266·293, 1971·72·74. (후에 同, 『將軍權力の創出』, 岩波書店, 1994에 再録). 奥野高廣, 「織田政權の基本路線」, 『國史學』100, 1976.

5) 藤木久志,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東京大學出版會, 1985. 同, 『戰國の作法』, 平凡社, 1987. 稻葉繼陽, 「中世史における戰爭と平和—村落フェデ의 實態·達成·歸結—」, 『日本史研究』440, 1999.

6) 久留島典子, 「中世後期の『村請制』について」, 『歴史評論』488, 1990. 稻葉繼陽, 「村の侍身分と兵農分離」, (同, 『戰國時代の莊園制と村落』, 校倉書房, 1998, 初出 1993). 藤木久志, 『村と領主の戰國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97.

7) 池上裕子, 「織豊期檢地論」, 『日本中世史研究の軌跡』, 東京大學出版會, 1988.

8) 稻葉繼陽, 「中世社會の年貢收納咬」, 前掲『戰國時代の莊園制と村落』所收.

9) 藤木久志, 前掲『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寺社(종교)세력의 제압이 그 전제이다. 특히 織田정권에 의한 本願寺·一向一揆세력의 제압이 그 관건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현재 織豊정권의 단절, 중·근세 이행기 사회의 단절을 강조해 온 전후 일본사학계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세와 구분되는 근세의 諸특질이 과연 무엇인가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단순히 연속하는 사실이 외에 이 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편성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自力救済」와 「平和」

권력론·국가론, 사회경제사, 인민투쟁사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까지의 연구가 1980년대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사 유행에 따른 여파이다. 국가, 권력 등 중심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종래 관심을 갖지 않은 非농업, 遍歷民(유랑민·떠돌이) 등 주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그 계기는 網野善彦에 의한 일련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으나,¹¹⁾ 중·근세 이행기에 한정하여 볼 때 藤木久志가 제기한 이른바 「豊臣平和令」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¹²⁾ 이 풍신평화령론에 자극받아, 중·근세 이행기 연구에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 업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藤木說은 중세와 근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 온 병농

분리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병농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刀狩令과 무사의 城下町집주에 불과하다. 또한 刀狩令 자체도 바다의 刀狩令이라 할 수 있는 海賊停止令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분석이 아니며, 豊臣刀狩令과 근세의 刀狩令과의 연관성도 일관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실증적 기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만으로 병농분리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농분리의 정치과정도 기존 연구에서는 풍신평화령의 일관된 군사정복에 의한 전국통합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秀吉에 의해 멸망된 전국대명은 後北條氏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같이 豊臣정권의 군사적 강압성과 권력의 전제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藤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豊臣平和令이란 개념을 제시하여, 풍신평화령의 새로운 측면을 조망하고 있다. 豊臣정권이 반포한 隆無事令(=大名의 평화), 喧給停止令(=村落의 평화), 刀狩令(=백성의 평화), 海賊停止令(=바다의 평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것을 일괄하여 豊臣平和令 체제라 이름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평화라는 개념의 성격이 문제시된다. 藤木에 따르면, 여기서의 평화란 현대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유럽중세사에 있어 家の 평화·특별평화(フリーデ), 12세기 중기 독일의 제국평화령(ラントフリーデ)·무기규제와 같은 것이며, 이 평화의 반대편에는 중세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私戰(フェーデ), 즉 敵討, 合戰, 境論·山野水論에 따른 喧給(분쟁 다툼) 등이 있다. 豊臣평화령의 출현은 중세사회의 광범위한 私戰의 세계, 이른바 중세 재지사회의

10) 神田千里, 『信長と石山合戦-中世の信仰と一揆-』, 吉川弘文館, 1995. 神田은 “통설에서는 一向一揆을 侍와 ‘百姓’(평민을 나타내는 中世語:神田 原注)의 공동전선으로 보며, 병농분리를 통해 侍와 ‘백성’이 격리되면서 신분의 差가 생기는 근세에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중세적이었기 때문에 근세를 構築한 지배자에 저항하였고, 통일정권 출현과 함께 소멸될 운명에 있었던 一揆, 이것이 지금까지 상징되어 온 一向一揆의 모습”이라 통설을 정리하고, 그러나 이는 “(本願寺)教團의 실태를 연구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한다. 중근세 이행기에 관한 諸선행연구는 실증이 동반되지 않은 선험적인 ‘급격한 대변혁설’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며 실상은 서서히 변해나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완만한 변혁설’을 제기한다.

11) 網野善彦, 『無縁・公界・樂』, 平凡社, 1978. 同, 『日本中世の非農業民と天皇』, 岩波書店, 1984. 사회사의 제 흐름에 대해서는 石井進, 『社會史の課題』, 岩波講座『日本通史』別卷 1, 1995 참조.

12) 藤木久志, 前掲『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자력구제관행과 이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염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藤木の 연구는 勝釐嶺夫의 전국시대 ‘領國平和令’이라 할 수 있는 喧給兩成敗法·國質鄉質구제법에 대한 연구,¹³⁾ 豊臣시대 「天下悉ケンクワ御停止」令을 중세 촌락간 쟁론에 대한 自力規制法の 연장속에서 파악한 酒井(舊姓: 野野瀬)紀美씨의 연구에¹⁴⁾ 촉발된 면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藤木은 豊臣秀吉의 전국통합이야말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며 중세최후 단계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나타난 領國平和令의 총괄로 보았다. 따라서 풍신정권에 있어 군사적 집중과 전쟁수행체제는 권력의 재판권 집행과 평화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것이 본질이자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풍신정권의 국가적 ‘폭력’ 집중을 강조하면서 전국대명의 公儀를 부정함과 동시에 豊臣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公儀 독점을 본질로 파악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타났으나,¹⁵⁾ 논쟁의 전개과정에 있어 보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배경이 된 중세 재지사회 특히 자력구제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촌락내의 실상이었다.

흔히 일본 중세사회를 自力救済사회라 한다. 이것은 일본 중세 공권력의 한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의 다름 아니다. 다만 자력구제라고 하면 흔히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의 복수가 연상되나, 이러한 관념은 근년에 연구에 의해 점차 극복되게 되었다. 즉 중세 재지사회내에도 싸움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어장치 및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령 손익이 균형상태에 도달하였다고 쌍방이 주관적으로 느낀 시점에서 분쟁은 종결되고 있으며, 또한 그 해결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적 초월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

이 무조건적인 피의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¹⁶⁾

그러나 藤木과 같이 豊臣平和令=통일권력에 의한 自力救済의 원리 전면부정이란 사실을 강조하면, 중세 재지사회가 가혹한 보복주의에 지배받던 세계였다는 통념이 다시 등장한다. 즉 가혹한 보복을 피하기 위한 민중의 염원이 「平和」로 귀결되어 통일권력의 정책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藤木은 豊臣喧給停止令을 “천하의 법이란 권위로 밀어 부칠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의 하나는 이 법이 중세 토착의 가혹한 자력 법의 지배에서 농민을 해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중·근세이행기 전체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藤木の 豊臣平和令論에 자극받아 많은 연구자들이 그 배경이 되는 중세 재지사회(내지 그 관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촌락의 주체적 동향과 촌락간 분쟁 등을 통해 나타난 재지사회의 ‘자력구제’ 실태를 규명하는데 힘썼고, 그 결과 전술한 바대로 太閤檢地와 兵農分離라는 정책을 통해 중·근세이행기 사회의 단절을 지적해 온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이 시기의 연속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平和와 그 대극에 있는 전쟁의 실상, 평화를 지키려는 촌의 움직임, 중·근세이행기 촌락과 민중의 생활한 생활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¹⁷⁾

3. 都市와 物流, 寺社

최근 중·근세이행기 연구에 있어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도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50년대

13) 勝釐嶺夫, 『戰國法成立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79.

14) 野野瀬紀美, 「豊臣政權下の水論と村落」, 『ヒストリア』 70, 1976.

15) 永原慶二, 『日本の中世國家』, 日本放送出版協會, 1980(後에 『日本中世の社會と國家』로 改題). 水林彪는 중세인민이 平和願望을 갖고 있다는 想定은 통일권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을 가져올 뿐이며, 藤木說이 모든 논의를 국가와 백성에 국한시킴으로써 개별영주권력 對 촌락·백성이란 계급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水林彪, 「一九八五年度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批判・全體會」, 『歴史學研究』 594, 1985).

16) 村井章介, 「中世の自力救済をめぐる一研究狀況と今後の課題」, 『歴史學研究』 560, 1986.

17) 藤木久志, 『戰國の村を行く』, 朝日新聞社, 1997.

로 豊田武·原田伴彦 등의 연구에 의해 室町시대에 이미 일본 전국에 많은 중세도시가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¹⁸⁾ 1960년대의 도시연구는 이른바 自由都市論 문제로 집약되어 전개되었는데, 이를 인정하는 긍정론(高尾一彦), 자유 도시의 존재자체는 인정하지만 한계를 강조하는 입장(豊田武·脇田請子),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부정론(原田伴彦·林屋辰三郎)으로 나누어져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자유도시론의 최대 문제점은 서양식 모델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 있었다. 즉 서구 시민자치의 원천을 중세자유도시에 찾아 그와 비슷한 양상이 堺·博多 등 중세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자유도시론은 '자유도시' 출현의 배경에는 중세 말기 武家권력의 도시지배력 약화가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京都의 경우 室町막부·三好(미요시)정권이 마지막까지 市政權(과역부과, 법령의 반포, 檢斷 등)을 장악하고 있었고, 堺의 경우에도 三好정권의 영향하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자유도시론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織豊권력이란 근세 통합권력의 출현에 의해 비로소 도시공동체가 권력에 굴복한 것도 아니었다.¹⁹⁾ 이미 전국시대에 武家권력에 의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중세도시에 대한 이론적인 성과를 포함하여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1980년대 이후 사회사유행과 함께 다시 새로운 붐을 맞이한 것이다. 현재 중세 都市에 대한 연구는 대략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진다.²⁰⁾

첫째, 越前の 戰國大名 朝倉氏の 一乗谷城館유적과 瀬戸内海の 港町 草戸千軒유적 조사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접근이다. 근래 일본에서는 중세사의 경우에도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전국대명의 성관구조 전모를 알려준 대표적인 유적이며, 후자는 廣島縣 芦田川 河口 中洲지역에 번영했으나 홍수로 인해 완전히 수몰된 중세 港町을 복원

한 것으로 중세도시생활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둘째, '無縁論' '非農業民'論 = '중세적 자유'에 근거한 도시편성원리에 주목하는 중세도시연구이다. 網野善彦은 중세도시, 즉 宿·市 및 그것에 準하는 도시공간을 중세지역영주의 지배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無縁'의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곳을 활동의 장으로 삼고 있는 '비농업민' = 상인·수공업자는 지역영주에 의한 신분제적 지배의 직접적인 대상인 농민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無縁' = '중세적 자유'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요한 연구성과를 거둔 분야중 하나인 도시사회사는 이 網野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종래 사회분업론적 시각에 입각한 중세도시상과 매우 다른 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문헌사학, 역사지리학, 성곽연구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구사하여 도시경관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小島道裕, 市村高男 등의 戰國城下町연구로 대표되는데,²¹⁾ 이들은 도시경관의 복원을 통해 중세도시의 전체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戰國城下町의 구체적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히 도시구조의 역사적 특질도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중세도시연구의 새로운 움직임은 근세사분야에서도 확인된다. 종래 도시전체의 자치문제를 다루었던 自由都市論과 달리, 예를 들어 朝尾直弘은 近世 京都의 개별町의 자율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²²⁾ 그에 따르면 町(초)은 같은 신분에 속하며 상업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누구 町人인가 하는 문제는 그 町이 결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町은 지연적, 직업적 공동체였다. 이러한 町의 성격은 중세도시의 도달점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織豊정권은 이러한 町의 성격을 육성하는 것에 의해 도시지배의 원활화를 도모하게 된다. 도시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근세중기이후에도 관심이 갖고 있으며,²³⁾ '공간, 공, 공동체'라는

18) 仁木宏, 『空間・公・共同體-中世都市から近世都市へ-』, 青木書店, 1997.

19) 同上.

20) 永原慶二, 「戰國期の都市と物流-研究史的檢討-」, 『戰國期の政治經濟構造』, 岩波書店, 1997.

21) 小島道裕, 「戰國期城下町の構造」, 『日本史研究』257, 1984, 同, 「戰國・織豊期の城下町」, (高橋康夫・吉田伸之編, 『日本都市史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90), 市村高男, 『戰國期東國の都市と權力』, 思文閣出版, 1994.

22) 朝尾直弘, 『都市と近世社會を考える』, 朝日新聞社, 1995.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세도시에서 근세도시로 이행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명하려는 연구도 있다.²⁴⁾

결국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권력과 피지배층 관계에 중심을 둔 1970년대까지의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는 도시 그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 관심을 확대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경관 및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는 나아가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성의 배경, 도시와 도시 상호간의 연결, 물자의 흐름, 수송이란 측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²⁵⁾

寺社(寺院과 神社)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중세사회에는 전국적인 신앙의 대상인 寺社부터, 郡 내지 國 단위의 신앙권을 유지하는 寺社, 작은 촌락과 都市내에 존재하는 寺社 등 다양한 형태의 寺社가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면 지역사연구의 필요성이 증폭되면서 大寺社의 역할이외에 재지사회 내지 민중과 관련한 在地寺社의 역할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三浦圭一은 지역신앙권의 존재에 착목

하여 당시 민중세계에 나타나고 있었던 광범위한 ‘地域’ 결합의 실태를 고찰하고 있다.²⁶⁾ 그는 勸進僧, 僧侶, 非人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촌과 촌, 장원과 장원이 연결됨으로써 출현하게 되는 지역결합의 구조를 규명하고 있다. 즉 勸進僧에 의한 토목공사, 승려의 의한 농사와 관련된 기도, 非인에 의한 祭器 생산 등 ‘人’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앙을 매개로 한 지역민중과의 결합, ‘지역’의 존재양태를 고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寺社간의 네트워크형성, 地域秩序형성에 있어 寺社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거나,²⁷⁾ 寺社의 네트워크문제를 유통과 신앙이란 입장에서 접근하여 山伏의 경제적 기능을 규명한 연구에 이르고 있다.²⁸⁾ 寺社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통, 물류문제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자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寺社문제를 도시공간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연구도 눈에 띄는데, 특히 一向宗 계열의 寺内町·門前町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23) 吉田伸之, 「近世の城下町・江戸から金澤へ」, 『都市と景観の読み方』, 朝日新聞社, 1988.

24) 仁木宏, 前掲『空間・公・共同体』. 『日本史研究』 420에는 特集「近世京都の誕生-豊臣政權と御土居-」라는 주제하에 都市 문제를 다루고 있다. 「豊臣期京都²隆構の復元的考察-「土居堀」・虎口・都市民-」(中村武生), 「御土居跡の發掘調査とその成果」(丸川義廣), 「中世環濠集落と²隆構え-考古學から見た中世後期集落の類型と變遷-」(前川要), 「都市京都と秀吉-首都の平和と公儀-」(仁木宏)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도시문제에 대한 관심고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25) 永原慶二, 前掲『戰國期の政治經濟構造』. 『日本史研究』 448 號에는 「中世水運と物流」라는 타이틀로 특집이 기획되어 있다. 物流 역시 최근 유행하는 연구에 있어 중요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26) 三浦圭一, 「日本中世における地域社會」, 『日本史研究』 233, 1981.

27) 歌原雅治, 「若狹三十三所と一宮」, 『史學雜誌』 99-1, 1990. 同, 「中世後期の地域社會と村落祭祀」, 『歴史學研究』 638, 1992.

28) 歌原雅治, 「山伏が棟別錢を集めた話」, 『遙かなる中世』 7, 1986.

▶외국의 일본연구동향

미국의 일본경제연구 동향

정진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경제의 연구가 미국의 경제학, 또는 일본 연구에서 하나의 분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락우드(William W. Lockwood)가 1954년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을 발표한 이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일본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도 연구자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공동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72년에서 76년 사이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한 프로젝트(그 성과는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1976)와 1980년대의 미국, 일본 학자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그 성과는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1-3, 1987-92)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경제 연구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진전되어 갔다. 1980년대에는 미시건,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일본경제에 관한 프로그램 및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JJIE)*와 같은 일본경제에 관한 전문 저널이 창간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미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는 적어도 1980년대에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는 일본경제가 버블경제를 구가하고 있던 1980년대 후반에 비해, 그 매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일본경제 전문가의 양성 문제에 나타나고 있다. 장학금의 지원 등이 감소하면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전문가 중의 경제전공자의 비중도 최근 감소하고 있다. 또한, 유능한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대학에 종사하기보다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나 국제금융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도, 경제전공자의 양성에는 마이너스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연구의 쇠퇴는 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이다. 일본에 관한 수많은 연구성과는 전과 다름없이 발표되고 있고,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일본경제연구의 프로그램 및 연구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과정 이수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글로벌화의 진행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필요로 하게 될 일본 전문가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 지원 시스템의 충실화, 특히 장학금의 확보 등이 과제라고 하겠다.

한편, 경제분야의 연구가 쇠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일본연구 또는 일본학에서 차지하는 경제연구의 독특한 위치에서도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본경제연구가 점점 더 일본학연구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학, 또는 일본연구라는 시각에서 일본경제연구를 관찰하면 쇠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 미팅에서는 일본 경제에 관한 패널은 거의 마련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 연구 저널에서도 경제분야 논문의 기고는 활발하지 않다. 반면, 일본경제연구자들은 거의 전부 미국 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회원이며, 일본경제에 관한 테마를 다루는 패널들이 AEA의 연례 미팅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미국의 일본경제전문가들은 스스로를 일본전문가로서보다는 경제학자로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학이 일본경제전문가를 채용할 경우도 일본에 관한 연구실적보다도 우선 경제학자로서의 업적을 우선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에 의해 다른 분야의 일본전문가들이 경제영역의 연구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연구를 일본지역 연구의 일환으로서보다는 경제학의 한 연구분야로서 수행하는 경향을 낳게 되고, 점점 더 학제적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각 연구 분야가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비단 경제학 분야만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연구 전체에 대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일본경제연구는 반드시 일본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JJIE에 실린 논문이나 NBER 위킹페이퍼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일본경제를 자신의 연구분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경제학자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은 일본학 또는 일본연구 분야와는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경제연구에서 인상적인 것의 하나는, 일본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밀접하고도 두터운 교류관계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연구자와 미국 연구자와의 공동 프로젝트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나 조직간에 있어서나 항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일본에서의 일본경제연구와 미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의 구별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두 나라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연구 주제에 관하여 보면, 1950-60년대는 경제사적 연구가 많았으나, 적어도 1970년대 이후부터는 현대 일본경제의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1980년대의 일본경제연구는 단지 전후 일본경제의 매크로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일본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미·일무역마찰이 격화됨으로써, 무역문제를 둘러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특수론’과 같은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일본의 무역정책, 거래관행,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둘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일본의 다국적기업, 해외 투자의 문제가 부상되었다.

셋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융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가져온 충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은행시스템, 기업의 자금조달, 국제금융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넷째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격렬한 환율의 변동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문제는 금융의 자유화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다섯째는, 공산권의 몰락을 들 수 있다. 공산권의 몰락은 자본주의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본주의간의 비교연구를 활성화시켰다.

여섯째는 다섯째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본경제의 80년대 후반의 버블 경기와 90년대의 불황은 일본의 경제시스템 및 기업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동향은 기본적으로 80년대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무역, 환율,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학적 주제와 함께 일본의 제도, 정책 등에 관한 미시적 분석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6년부터 2001년 하기까지 JJIE와 NBER Working Paper에 실린 논문의 테마에 대해 분석해 보면, 글로벌화, 특히 금융부문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환율, 무역, 금융, 통화정책, 기업의 자금조달 등이 주된 관심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일본 국내의 제도 및 정책 — 즉, 노동시장, 다양한 형태의 계열과 독점금지정책, 대기업의 성격과 역할(이것은 산업조직론, 기술개발, 투자행동, 내부 조직, 기업간 제휴, 기업 전략 및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포함한다) 등과 같은 문제들 — 과 기술, R&D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제도, 관행, 정책 등과 같은 ‘일본적’인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최근의 경제이론의 발전 — 게임이론, 기업이론, 신제도학과 등 — 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관련도서정보

2001년 하반기(7월~12월) 국내일본관련서적 출판 동향

편집부 편, 『(요점)일본인의 생활과 민속』, 예지각

편집부 편, 『(핵심)일본인의 생활과 민속』, 은하출판사

이마이 준 외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譯, 『논쟁을 통해 본 일본사상(『日本思想論争史』)』,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일본사상사의 논쟁점과 전개과정을 서술한 책. 외래사상인 불교가 일본화하면서 불교 내부에서 일어난 사상적 대립, 불교와 일본 고유의 신도이론의 대립과 상호융합 과정 및 중세의 역사철학, 문예이론, 미의식에 대해 기술했다. 또한 전국시대에 전래된 기독교에 대하여 유교와 불교 쪽에서 제기한 비판과 논쟁, 소라이가쿠를 중심으로 한 상호 대립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수록.

조양욱, 『물구나무 서서 본 일본』, 해냄출판사

☞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가 오늘의 한국과 일본에 관해 〈국민일보〉 등에 게재했던 칼럼을 모아 엮은 책. 일본인에 의해 100여 년 전에 〈춘향전〉이 이미 일본에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담은 〈춘향전과 주신구라〉를 비롯해 〈포장마차 문화의 한일대비〉, 〈일본 청년의 영남대로 답사기〉, 〈채수생은 떠돌이 사무라이〉 등 40여 편의 글을 수록.

김영명, 『컴플렉스의 나라 일본』, 을유문화사

☞ 현대 일본이 처한 모순에 대해 규명한 책. 저자는 그 모순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강한 국가 경제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민 생활의 모순이고, 둘은 발전한 국가 경제와 상대적으로 뒤쳐진 다른 모든 부문의 괴리이며, 마지막은 서양 것에 대한 탐닉과 '독특한 일본'에 대한 자폐적 애정의 모순이라고 파악. 그러한 모든 모순의 근저에 있는 정신의

빈곤을 지적하며 일본의 지향점에 대해 지적.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 하늘재

☞ 건축사학자인 저자가 일본의 곳곳을 돌아보며 숨은 우리의 근대사를 발굴해 낸 결과물. 식민지 시대의 우리 지식인과 근대사의 현장들이 저자가 소장해 온 사진자료 200여 장과 함께 소개.

송영심, 『왜곡 일본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문공사

☞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가 무엇을 잘못 썼으며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다양한 자료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서술.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학회 엮음, 김석근 譯, 『철저비판 일본 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 황국사관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의 이데올로기적 반란에 대한 정통 역사학자 22인의 전방위적 분석과 비판을 신랄하게 담은 책.

한국일본학회, 『일본문학의 이해(일본연구총서 6)』, 시사일본어사

☞ 일본 문학 입문서. 일본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 보고, 그 속에서 우리문학과와의 관계를 엄밀히 고찰. 아울러 고대, 중고, 중세, 근세, 근대의 일본문학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고 역사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서술.

정인문, 『일본 근대문학사의 재인식』, 영한

☞ 〈조선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저자의 일본 근대문학사 연구서. 통설에 따라 명치 초기를 근대의 출발로 태평양전쟁 전후를 근대, 현대로 나누어 일본 소설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수록.

김주영 엮음, 『이것이 일본이다』, 산과들

☞ 일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부터 우리 해안을 침범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으며 임진왜란을 거쳐 일제 36년 동안 천만에 가까운 양민과 지사들을 죽였고 위안부까지 만들어 유린하고 괴롭힌 일본에 대해 연대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수록.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소순창 외 譯,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Japan's Choice in the 21st Century)』, 김영사

☞ 『문명의 충돌』의 후속편. 문명충돌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동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한 책. 21세기 아시아의 핵심 변수인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예측을 풍부한 도식과 함께 핵심적으로 다루고, 일본에서 강연한 내용을 옮긴 21세기 일본의 선택도 함께 수록.

공로명 편, 『일본의 갈 길을 생각한다』, 솔

☞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일본총서 1. 역사적 연유로 인해 다소 편파적인 판단을 하게되는 일본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이 책은 일본의 진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솔직한 대담과 화제가 된 논문들을 수록. 21세기를 대비한 일본의 정치, 경제 시스템의 6대 개혁을 비롯해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평가한 내용 수록.

이케나미 쇼타로, 이성범 譯, 『일본전국을 통일한 3인 영웅전』, 제이앤씨

☞ 일본의 센코쿠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이룩한 세 영웅의 이야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와 함께 세키가하라의 결전, 도요토미가 멸망 등의 5가지 이야기를 서술하고,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의 주요 역사와 자세한 각주를 제시.

홍윤기, 『일본의 역사 왜곡』, 학민사

☞ 일본 역사 연구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규명한 책.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날조한 일본 역

사교과서와 일본 제국주의의 광개토왕비 비문 훼손 등의 일본 고대사의 진실, 일본 국보가 된 백제 목조 불상들 등의 일본 문화 유산의 위선 등을 수록.

이시재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3년부터 3년간, 일본 가와사키 시의 지역조직, 사회교육, 사회운동에 관해 연구한 책. 초나िका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근린사회 조직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대표적인 연구문헌을 수집하고 검토하며, 직접 조사한 내용을 담음. 가와사키 지역사회와 생활조직을 비롯해 사회교육과 시민의 형성, 혁신자치체와 시민운동, 새로운 사회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보광, 『일본선의 역사』, 여래장

☞ 일본불교사와 일본선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개론서.

고영자, 『일본의 중세 무가시대』, 탕자

☞ 일제 때의 교과서를 참고로 중세 무가시대의 일본 역사를 소개. 하극상이 만연했던 무가시대.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 맞는다는 무장들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기본적인 논리가 성행하던 일본 역사 속의 무가 폭력시대를 흥미있고 쉽게 서술.

박용구, 『글로벌시대의 일본문화론』, 보고서

☞ 일본문화론의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책.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국제화시대로 넘어가면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화와 일본의 문화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인의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본질을 둘러싸고 논의되어 온 일본문화론의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 일본교과서의 문제점을 다룬 책. 일본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망언의 역사와 일본 여성학자들의 ‘후소샤 교과서’ 분석과 비판을 담음. 또한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의 대응 방안과 우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본의 논리를 제대로 분석하여 극복방안을 모색.

데루오카 야스타카, 정형 譯, 『일본인의 사랑과 성 (한림신서일본학총서 60)』, 소화

☞ 사랑과 성의 일본문학사. 일본인이 자유분방하게 성과 사랑을 즐기던 고대에서, 유교적 윤리가 자리잡아 프리섹스의 종언을 고한 중세를 거쳐 다시 불륜의 의식조차 사라진 현대의 새로운 사랑과 성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사랑과 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며 행동했는지를 문학작품을 통해 소개하고 분석.

사이카와 마코토, 조양욱 譯, 『천황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다락원

☞ 일본 국가의 본질과 그 유래를 담은 입문서. 천황을 우두머리로 삼는 고대 율령제도는 무너졌지만 천황과 율령 시스템의 정통성은 잃어버리지 않은 일본 국가의 본질과 그 유래의 수수께끼를 알기쉽게 제시.

구건서, 『일본 지식인의 사상』, 현대미학사

☞ 일본 지식인의 사상을 고찰한 책. 후쿠자와 유키치의 계몽사상에서부터 미시마 유키오와 오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근대의 소설가 및 일본 현대사상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토학파까지를 망라함. 이를 통해 7개의 유형 혹은 계보를 완성하여,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19세기적 근대에서 20세기적 현대로 변천해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서술.

고바야시 요시아키, 소순창 譯, 『현대 일본의 정치과 정연구』, 한울

☞ 일본식 민주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책. 일본의 정치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가 기능부전의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제시. 이에 정치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해 선거공약 등록제,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제창, 국민투표, 주민투표의 실시 등의 다양한 제안을 시사.

이덕주,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에디터

☞ 허약한 나라의 방위체제와 위기에 대한 대처능

력 부족이야말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자가 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 책. 조선의 멸망에서부터 조선 망국론, 조선의 세력균형 정책,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말기의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유를 제시.

야마구치 게이치, 김현영 譯, 『일본근세의 쇄국과 개국』, 해안

☞ 일본 근세사회의 독특한 구조와 그 역사 전개를 세계사의 동향과 관련지어 논술한 역사서. 근세일본의 새로운 金銀 생산방법의 도입에서 부터 근세 초기 이후 농민의 변화, 막번체제의 관료제, 불교와 민중, 1843년 닛코 신사참배, 개국까지를 시대순으로 서술. 부록으로 에도 시대의 기본사료와 국헌 대조표 등을 수록.

장영철, 『모반의 구조를 통해 본 일본 역사군담 연구』, 보고서

☞ <군키모노가타리> 즉 일본 역사군담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헤이케 모노가타리』를 비롯, 그 효시라 할 수 있는『쇼몬키』에서 중세 남북조 시대의 내란을 배경으로 하는『다이헤이키』까지 9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논문. 이는 중세시대에 나온 일본 역사군담의 대표작을 거의 망라한 격. 주로 모반의 구조를 통해 일차적으로 각각의 작품의 특색을 분석, 나아가 일본 역사군담의 전형성을 규명했다. 지금까지의 일본 역사군담 연구는 문헌학적 방법에 입각, 각각의 작품의 성립 과정과 원형을 밝히는 일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 문학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저자는 <왕권론><진혼론><조적론> 등 앞선 문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들 논의의 틀과 각도를 다소 달리한 <모반론>을 제기.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개화기 일본민간인의 조선조사보고자료집 1, 2』, 국학자료원

홍하상, 『일본 가짜 일본』, 비전코리아

☞ 동서 2천킬로를 발로 뚫은 다큐멘터리 작가 홍하상의 일본 여행기. 현재 일본의 실태에서부터 일본에서 바라보는 독도문제나 교과서 문제, 일본안의 한국문화와 1400년간 기업을 유지한 금강조의 역사, 일

본 대중문화와 그 힘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

권오엽, 『광개토대왕비문과 일본의 기기신화(일본문화연구총서 6)』, 보고서

장수왕이 부왕의 사거를 애도하여 건립한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을 중심으로 비문의 이해와 의의에 대해 기술한 책.

우메사오 다다오, 김양선 譯, 『일본인의 생활』, 혜안

일본문화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 크게 10개 장으로 나뉘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건물과 그 유래, 먹을 것은 없고 눈요기에 지나지 않다는 일본 식생활의 특성과 그렇게 된 원인, 기모노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통의상의 성립과정과 발달 과정 등 일본문화 전반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의 법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 논문집.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의미와 남북공동기소장이 갖는 의의를 살펴. 피해자가 받은 가해사실과 가해자를 밝혀내는 작

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문제를 시사.

아미노 요시히코, 남기학 譯, 『일본 사회의 역사(중), (하)(한림신서 일본학총서 62, 63)』, 소화

일본 열도 안에서 복수의 지역을 단위로 한 역사, 특히 동일본과 서일본의 지역차에 입각한 역사 개설서. 저자는 기존의 왕조나 막부 중심의 지배계층에 그치지 않고 농업민과 해민·산민을 비롯한 비농업민, 나아가 직인·예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중의 활동상에 주목하여 일본 열도 사회 안팎의 역사를 기술. 하권은 14세기의 남북조 내란에서 현대까지를 취급.

홍현길, 『일본의 도덕과 도덕교육(일본문화연구총서 10)』, 보고서

일본의 도덕과 도덕교육 전반에 대해 고찰한 연구서. 일본사회가 보여주는 도덕을 그대로 적어보며 나아가 도덕과 도덕 속에 들어있는 도덕성을 구조적으로 고찰한 1장, 도덕과 도덕교육에 직접 관련 있는 도덕사상으로 도덕과학을 정리한 4장 등 총 여섯 개 장에 걸쳐 일본의 도덕과 도덕교육 전반에 대해 고찰.

2002년 상반기(1월~6월) 국내일본관련서적 출판 동향

고영자, 『20세기 일본문학 태동기』, 전남대학교출판부

20세기 초 일본이 근대 국가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태동기인 동시에 황국사관,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근저인 명치유신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책. 江戸 시대의 문학개념 및 계몽기의 사상과 문학, 일본 초기 낭만주의 시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이원덕 외, 『동요하는 일본의 신화』, 지식마당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본 현재의 일본. 전후 일

본의 성공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패신화로 전환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나타날 향후 일본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알렉스 커(Alex Kerr), 이나경 譯, 『치명적인 일본(Dogs and Demons)』, 홍익출판사

일본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 증상들을 파헤친 영국 작가의 일본문화 진단서. 유년시절부터 일본에 와서 살았던 저자 자신의 일본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신랄한 비판을 가함.

니토베 이나조, 이만희 편,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 학문사

☞ 정의, 의리, 용기, 인, 예, 진실, 성실, 명예, 충의, 극기 등을 배우는 책. 일본에 무사도정신이 무엇이며 日本刀에 대해 서술.

미요시 유키오, 정선태 譯,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

☞ 문학 텍스트에 근거하여 일본 근대문학의 정신적 궤적을 탐색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타니자키 준이치로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문학사의 전개를 개괄한 뒤,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반근대'의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

정인문, 『일본 근현대 작가연구』, 제이앤씨

☞ 일본 근·현대 작가 연구서. 작가론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함께 일본의 근·현대 대표 작가34인에 대한 작품, 생애에 관련된 작가의 다양한 측면을 언급.

이일숙, 『시대별 일본문학사』, 제이앤씨

☞ 일본 문학의 역사를 한글과 일본어를 섞어 설명한 책. 상대 문학부터 근대의 시가와 극문학까지 일본 문학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설명해, 일본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

유상중, 『일본을 바로 알자:일본왕가의 뿌리는 한국』, 학문사

☞ 일본의 역사를 한일관계사를 바탕으로 고찰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의 농경사회의 형성과 야요이 문화부터 시작하여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 1990년대까지 일본의 원시,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사를 한일 관계사를 바탕으로 고찰.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일본근대문학과의 비교고찰』, 역락

☞ 시인 정지용의 업적을 일본근대문학과 비교, 고찰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비교문학적 연구방법, 특

히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 외국문학과 비교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시인 정지용이 어떤 뜻으로 '최초의 모더니스트'인가 하는 문제에 답함으로써 정지용 평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나와 유미오, 김인호 譯, 『일본고문형벌사』, 자작

☞ '일본 고문형벌사'라는 이름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본의 에도 시대의 형벌 방법에 대해 서술해놓은 책. 당시의 자료들을 모아 판화와 함께 함께 자세하게 묘사.

조양욱, 『일본 키워드 99』, 다락원

☞ 일본을 대표하는 99개의 문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본문화에 대해 정리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풍부한 사진자료들을 함께 수록하며 가라오케, 닌텐도, 후지산, 아쿠자, 이지메, 엔조코사이 등 99가지 문화 키워드를 통해 일본을 설명.

김태영, 『유교문화의 돌연변이 일본』, 보고서

☞ 저자가 1998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에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자료를 보충하여 새롭게 펴낸 책. 주로 일본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어 통계숫자를 많이 제시하면서 일본정부백서와 사회조사자료를 활용. 같은 유교문화권이면서도 서로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

호사카 유우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신일본학연구총서 2)』, 제이앤씨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정책을 분석한 연구서. 일본이 통치한 지역중 조선, 대만, 만주를 선택하여 민족동화정책의 양상과 내용을 상세히 비교·분석.

유전국남 편, 김용의 외, 『일본의 민담』, 전남대학교출판부

☞ 옛날부터 대대로 일본의 아이들이 늘 듣고 있던 이야기로 묶은 민담 책. 이 책은 야나기타 구니오가 엮은 책이며,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채록한 민담을 중심으로 구성. 수록된 민담의 대부분이 일본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민담이며, 한국의 민담

과 유사한 구조와 모티브로 된 민담이 적지 않게 수록.

가라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譯, 『현대 일본의 비평 (1868-1989)』, 소명

☞ 일본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의 비평사. 근대국가 성립으로부터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사상, 비평의 문제, 언문일치와 번역의 문제, 기독교, 자연주의, 시라카바파, 독자 사회의 형성과 사소설 그리고 전향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문학비평을 넘어 문학·사상·사회과학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 또한 가라타니 코오진의 논문〈근대 일본의 비평, 쇼와 전기〉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지성을 비평의 관점에서 검토.

공의식 외,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 일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영남 지역 일본학 연구자들이 모여 저술한 책. 어문학은 물론 정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인류학, 종교학, 법학 등 일본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

김창규, 『일본 식민문화가 남긴 찌꺼기말』, 국학자료원

☞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들에 대한 비판서. 국문학 교수인 저자는 우리 국어를 정확히 쓰기위해선 그 말이 사용된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말이 정통성을 갖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 외 저자가 쓴 산문과 일기, 시 등을 함께 담았으며 부록으로 명구와 명언, 호칭·지칭어와 바른 우리말 사용 예 등을 수록했다.

이원순 외 편,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 2001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통과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에서도 특히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새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한일 양국의 역사가들이 한국사와 일본사의 시각에서〈새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사관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한상일,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오름

☞ 일본 제국주의의 한 토대가 되는 대륙 낭인과 그 중심단체인 흑룡회에 관한 연구서. 일본의 대륙침략과 관련한 동아시아 연대론의 역사성을 고찰.

박화진 외, 『일본문화 속으로』, 일본어뱅크

☞ 일본의 전통문화론이라는 테마를 축으로 하여 일본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연중행사와 일상생활 속의 의식주, 일본의 마츠리와 놀이문화 등에 대해서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 책.

송한용, 『동북군벌과 일본』, 서도문화사

☞ 동아시아의 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의 대륙정책 및 중일관계를 분석한 연구서. 장학량정권과 일본, 남경 국민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만주지역의 국제적 성격을 제시. 만주지역 중심의 중일관계를 국제사적으로 조명.

손대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박이정

☞ 일본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쓴 책. 일본의 역사와 지리, 일본의 언어, 종교·사상 등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일본학교육협의회 엮음, 『일본의 이해』, 태학사

☞ 일본학 입문서. 일본자체의 특성과 고유한 문화양식을 함께 포함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일본의 사회구조, 문화론, 정치, 행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일본을 균형있게 총체적으로 파악.

이쿠타 사토시 외, 이재석 譯, 『(교양인을 위한)일본사』, 청어람

☞ 일본 역사에 대한 입문서. 일본의 역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역사의 전체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도표나 지도 첨부.

김재호 외,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 현대 일본의 정치체계를 해설한 이론서. 현대

일본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한 근대정치의 흐름을 살펴보고 의회제도, 정당과 내각, 정책결정과정, 지방제도의 변천과정 등의 국내정치와 미국,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정책 등에 대해 소개.

신현하, 『일본고전문학정해』, 보고서

☞ 상대로부터 중고, 중세를 거쳐 근세말에 이르기까지 1,2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고전문학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 일본의 고교나 대학의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종류, 작가, 성립, 특색 등에 대한 해설을 수록.

하라 준스케 외, 정현숙 譯, 『일본의 사회계층』, 한울

☞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했던 일본 사회의 계층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책. 메이지 유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층간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피고, 학력사회, 직업적 커리어, 계층의식, 여성의 계층적 지위 등 현재 계층 논의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를 탐구.

압장명 편, 류희승 譯, 『일본 중세 불교 설화』, 불광

☞ 일본 平安 말기의 불교설화를 수집한 책. 세상의 번뇌에 이끌리는 마음을 경계하고 불교에 정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들로, 승려와 재가신도들이 세상에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는 과정과 영험, 왕생의 설화들로 구성.

김미영,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민속원

☞ 한국과 일본의 촌락구조의 비교연구를 담은 책. 동질론과 이질론에 따른 마을 분류, 은거제에 따른 가족생활, 혈연보다 연령을 중시하는 마을생활, 아버지쪽과 어머니쪽을 가리지 않는 친족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장달중 외,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서울대학교 출판부

☞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보여준 변화와 구조적 적응에 관한 분석을 담은 연구서. 세계화와 일본체제의 상호작용과 세계화에 대한 일본체제의 역기능적 반응,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한 일본

의 민족주의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안보와 경제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등의 주제에 관해 언급.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일본의 조선병합 때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 우익낭인들의 행동과 사상을 낱알이 해부한 책.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동학농민군을 지원하고자 한 천우협(천우협)의 행동과 성격을 추적. 아울러 문제의식, 연구경향과 연구성과, 낭인 및 아시아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나가오 다케시, 박규태 譯, 『일본사상 이야기 40』, 예문서원

☞ 역대 일본사상의 풍부한 내용을 특별히 40가지 항목으로 모았으며, 일본의 사상가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그것을 고대에서 중세 및 근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구성.

한국일본근대문학회, 『일본근대문학 1』, 월인

☞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의 창간호. 한국일본근대문학회의 발표논문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일본근대. 현대문학. 각 전공분야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교수들의 글과 제1회 '한일합동 일본근대문학연구회' (2001.12), 제2회 '전국대학원일본근대문학연합세미나' (2001.2)에서 발표한 논문 등 22편을 정리하여 수록.

고자와 야스노리, 요시모토 하지메 공저, 『일본을 위한 변명』, 푸른나무

☞ 한국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인 저자가 직접 안내하는 정통 일본 문화론서. 풍부한 사진자료들과 함께 수록.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譯,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중심

☞ 전후의 일본인이 자국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고 또 일본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 전개되어 왔는지를 꼼꼼하고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이오베 마코토 외, 조양욱 譯,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 일본의 대외관계의 진전을 짚어 본 책. 戰前까지는 열강과의 '협조'와 제국으로서의 '발전'을 추구하여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적 변모 속에서 양립하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협조 없는 발전'에 빠져 망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은 '협조'를 중시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로 재생한 것으로 파악.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miyabi@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